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해 판매한 30대 구속

최경재 | 기사입력 2016-11-24 12:09 | 최종수정 2016-11-24 12:32



◀ 앵커 ▶

일반 감기약에서 마약성분을 추출한 뒤 필로폰을 제조해 판매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공장을 통째로 빌려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실험실까지 차렸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공장에 경찰이 30살 한 모 씨와 함께 들어갑니다.

겉보기엔 기계 공장처럼 보이지만 계단을 올라가 보니 실험실이 나타납니다.

책상 위에는 감기약과 담배가 쌓여 있고 유리그릇 안에는 필로폰 주원료인 '슈도에페드린'이 담겨 있습니다.

벽면 곳곳엔 필로폰 제조 방법을 적은 종이도 붙어 있습니다.

[경찰]

"지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마약 제조와 관련된 약품들이죠?"

이곳에서 한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시중 약국을 돌면서 감기약 백 통을 사들여 필로폰 200g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감기약에서 마약 성분을 추출한 뒤 화학처리를 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씨는 이 필로폰을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20여 명에게 팔아 1천 1백여만 원을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됐고 2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한씨와 한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32살 조모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